

종합·해설



6·2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2일 정동재 전 문화관광부 장관, 양형일 전 국회의원, 윤난실 민주노농당 위원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 수석(오른쪽부터) 등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날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이석형 전 학평군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깨띠 두르고 시장·골목으로 잔걸음

6·2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 날 이모저모

6·2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2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시도교육감 입지자들은 일제히 예비후보 등록을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특히 광주시장 예비후보 일부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정선거를 다짐하기도 했으며, 시장 후보들의 5·18 당시 행적은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며 쟁점화를 시도하는 모습이었다. 후보들은 또 지하철역, 재래시장, 주택가 골목 등을 들며 명함을 돌리는 등 유권자와 스킨십에 나섰다.

추첨으로 접수 순번 정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시 선관위에는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는 정찬용 전 청와대 수석, 정동재 전 문화관광부장관, 양형일 전 국회의원,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위원장 등이 각각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도착했다. 이들은 선관위 방침에 따라 등록 순서

대형 플래카드 내걸어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각 선거사무실 외벽에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어깨띠를 맨 뒤 재래시장과 상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정동재, 양형일 예비후보는 이날 예비후보 등록 이후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기자회견을 한 뒤 북구 말바우시장, 북구 청소년수련관, 여성발전센터 등을 각각 돌며 유권자

접촉을 늘려나갔다. 정찬용 예비후보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상가와 지하철 상무역에서, 윤난실 예비후보는 하남산업단지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첫 번째 등록을 한 정 전 수석은 “드디어 출정이라는 생각에 벅차다. 선거운동 규제가 다소 완화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비후보 등록을 빨리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첫 날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선 방식 갈등 그만’

○~후보 단일화설이 나오고 있는

정동재 전 문화관광부장관과 양형일 전 국회의원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이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정책선거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장 경선 방법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중앙당의 합리적 과정을 거쳐 경선제도가 마련되면 중앙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더 이상 경선 방식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에너지를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시장 경선에 임하겠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감독의 눈길을 비켜가겠다는 의도다”고 지적했다.

5·18 행적 쟁점화 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장 후보의 5·18 당시 행적 공개와 관련, 예비후보자들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동재 예비후보는 “광주시장은 국회의원과 달리 광주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일 예비후보는 “광주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5·18 정신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난실 예비후보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장 후보 개인들이 최소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등록 안한 현직·국회의원 출마자들도 ‘관심 끌기’ 행보

박광태 광주시장·박준영 전남지사, 강운태·이용섭·주승용 국회의원, 전갑길 청와대 수석은 각각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준비를 하고 있으나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현직 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고, 국회의원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분간 현직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이나, 선거운동에 나선 상대방에 뒤지지 않기 위해 가능한 유권자의 시선을 끄는 행보를 계획할 것으로 보인다.

박광태 광주시장의 경우 이날 간부 회의를 주재하는 등 평소처럼 움직였다. 박 시장은 이달 말 출마선언하고 4월께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달 말 출마 선언 예정인 박준영 전남지

사는 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2개 시·군을 돌며 ‘도민과의 대화’를 유권자들을 만난다. 강운태·이용섭과 주승용 의원 등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슈를 만들어 가는 등 관심 끌기에 주력하고 있다. 강운태 의원은 5·18 당시 행적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5·18과 관련 해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국가기록원에서도 관련 서류가 없다는 회신을 구속 부상자측에 1월 29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 세종시 원형지 공급과 관련한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주승용 의원은 전남도의 F1 대회 숙박 대책을 촉구했다. 전갑길 광산구청장도 광주시의 재원조정교부금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각을 세웠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물 우선, 공약은 꼼꼼히

① 6·2 지역살림꾼 제대로 뽑자

6·2지방선거가 2일 사·도지사와 교육감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장정에 돌입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아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하기) 운동이 꾸준히 전개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의 성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광주·전남이 민주당 뒷발이라는 점 때문에 본선

<목 차>

생깨끗한 한표 행사
중줄세우기 공천 그만
해이제 정책선거다

중 주요도 순서로 72개를 선정한 뒤 우선 순위 10개를 뽑아 시민여론조사·시민 심층토론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러한 10대 어젠다를 각 후보들이 공약에 얼마나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유권자는 꼭 필요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아울러 각 후보들도 정책 반영, 공약 발표에 앞서 각 정책 분야별로 실현 가능성 및 정당성·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예산 계획 등을 이야기 할 것으로 보인다.

매니페스토만들기 본부는 앞으로 이러한 10대 어젠다가 각 후보들의 공약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공약화 평가와 실현 이행평가 등을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매니페스토 광주본부 김기룡 사무국장은 “지역의 정치 지향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당은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후보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역 비전이 무엇인지를 고려해 우선 순위를 정해 예산·시간계획·타당성을 따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은 집단의 민원이 아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 후보자의 정책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도지사 출마자 의원직 사퇴 안된다” 이강래 민주원내대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이용섭, 주승용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문제와 관련, “경쟁 후보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원내대표는 2일 광주 지역 출입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광주와 전남지역을 포함, 전국적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현역의원이 10여명에 이른다”고 강조한 뒤 “이들이 전부 사퇴하게 되면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원직 사퇴론’에 깨기를 밟았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불운 지역 사정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등을 고려하면 당장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민국 장애인활동보조 1등 기관!!

사단법인 복구장애인복지회 활동보조사업기관은
2007년 사회서비스우수사례입상
2008년 봄꽃우수사례경연평가대회 최우수기관선정
2009년 수변사례집 으뜸기관으로 소개되어
안전광주의 미래를 열었습니다.

온빛사랑노인장기보조기관은
미안에서 떠도는 아픔과 보이콧까지 가기 힘들 때
돌아가는 말씀입니다. 둘 다 묻는 손길을 멈춰고 힘듭니다.

장애인목욕탕건립 추진기관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대한민국에서 광주 북구 태평로 440-47 구관 | 홈페이지 www.bqab.or.kr
전화 062-269-6380 | 모바일 062-269-6590

